

< 2016 반부패 청렴콘텐츠 공모전 >

청렴 보신탕이 준 선물

극본 조명

▶ 제목

청렴 보신탕이 준 선물

▶ 작의

수많은 부정, 부패 가운데 가장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관계는 무엇일까?

바로 핏줄로 이어진 사이 ‘혈연’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먼 친척이지만 혈연인 당숙의 유혹에도 청렴한 소신을 지켜낸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관주 씨의 사연을 휴먼 코미디로 그려 보았다.

이 대본을 통해 청렴한 삶은 멀리서 찾기보다 가족, 친인척 관계가 시작이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 등장인물

- 김관주 (남, 28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자연환경 안내원)

고향에서 우연히 본 채용 공고에 지원, 합격 후 새내기 직장인이 됐다. 뱀을 무서워하는 등 겁이 많지만 혈연관계에서조차 부정은 용납할 수 없는 청렴한 청년이다.

- 당숙 (남, 67세, 김관주의 오촌 당숙)

암 수술 이후 건강에 좋다는 보양식에 관심이 많아졌다.

- 기타

(아버지, 어머니,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 친척, 기자, 식당 이모 등)

▶ 줄거리

대학 졸업반이었던 김관주, 고향 보길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채용에 합격해 새내기 직장인이 되었다. 자연 환경 안내원인 김관주는 탐방객에게 소개할 생태해설 자료를 찾느라 매일 바쁘게 섬을 돌아다닌다.

어느 날, 도로 한가운데에서 멸종 위기생물 1급인 암컷 먹구렁이와 마주친다. 뱀 종류라면 기겁하는 겁쟁이지만 직업 소명 의식 때문에 먹구렁이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 우연히 만난 오촌 당숙은 구렁이를 보자 보양식으로 탐을 내고, 자신도 모르게 당숙을 도와 구렁이를 생포한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관주는 자책하며 당숙에게 찾아간다. 먹구렁이는 멸종 위기생물이라 보호해야 한다고 알리지만 당숙에겐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다. 어쩔 수 없이 관주는 당숙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남기고, 회사에 돌아와서는 사표를 쓴다.

다행히 온 힘을 다해 도망친 구렁이 덕분에 관주는 당숙과의 오해도 풀고, 청렴하게 직장 생활도 이어갈 수 있었다.

S# 1.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

책상 5~6개 정도 있는 아담한 사무실.

벽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풍경 사진이 걸려있고,

컴퓨터로 문서 작업 중인 직원, 전화 민원 상담 중인 직원 등
한창 일하느라 바쁜 사무실의 오전 풍경.

- 과장 (12시 10분 가리키는 벽시계 보며) 오전 업무 대충 마무리 됐으면
이제 슬슬 점심이나 먹으러 갈까?
- 관주 (전화 끊으며) 아~ 오늘따라 민원 전화가 폭주해서 말을 많이 했더
니 배가 더 고프는 거 같은데요.
- 직원1 무슨 소리야~ 관주 씨는 목연 수행한 날도 배고프다고 두 그릇 먹
었잖아.
- 관주 (민망해하며) 아.. 제가 그랬나요??
- 과장 오늘 점심은 뜨끈뜨끈한 추어탕 어때?
- 직원2 추어탕 좋죠~
- 관주 파김치 딱 올려서! 아~ 생각만 해도 침 넘어간다~

직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문 열고 나가는데, 전화벨 울리고,
관주, 급하게 다시 사무실 안쪽으로 뛰어가면

- 직원1 관주 씨, 추어탕 집으로 와~
- 관주 (전화 받으며) 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사무소, 자연 환경 안내원
김관주입니다.

S# 2. 추어탕 가게

손님들로 북적이는 추어탕 가게 식탁에 둘러앉은 직원들,
한 자리만 비워진 채 땀 뻘뻘 흘리며 추어탕 먹고 있다.

- 과장 관주는 왜 이렇게 안 와?

가게 문 열리며 관주 급하게 뛰어 들어온다.

- 관주 (자리에 앉으며) 방송 나오고 탐방 문의 전화가 아주 쇠도해요. 이
러다 우리 오늘도 야근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 직원1 그러니까 오늘 보양식 먹는 거잖아. 관주 씨도 얼른 한 그릇 해~

서빙 (뚝배기 관주 자리에 놓으며) 탕 나왔습니다.
 관주 (탕 속에 통 추어 보고 놀라며) 아, 깜짝이야! 이거 통 추어잖아요.
 직원2 맞다! 관주 씨 같아서 추어탕만 먹지?
 과장 무슨 소리야. 통추어가 몸에 더 좋은 거야~ 남자가 무슨, 그냥 먹어~
 관주 (뚝배기 과장 앞으로 치우며) 으~~ 저는 길고 꿈틀거리는 건 딱 질색이에요. 이걸 과장님께 양보할 테니 한 그릇 더 드세요.
 이모님! 여기 추어 같은 걸로, 미꾸라지 티 안 나게, 알죠? 여러 번 갈고 또 갈아서 한 그릇 주세요.

S# 3. 차 안 (8년 전)

자동차 문 쪽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라고 쓰여 있고,
 운전 중인 관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는데
 ‘신입_자연 환경 안내원’이란 명찰 보인다.

관주 (운전하는데 기분 좋은 듯 혼잣말) 고향에 잠깐 들렀을 뿐인데, 때마침 채용공고 발견하고~ 이력서 썼을 뿐인데, 운 좋게 한 방에 취직하고~ 공기 좋고,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자고.. 아~ 역시 고향이 최고다 최고! 그럼 이제 여자만 만나면 되는 건가?
 (두리번거리며) 여자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도로 한가운데 길고 까만 물체 발견하고, 놀라서 브레이크 밟는다.

관주 아 깜짝이야! 저건 뭐야?

S# 4. 도로

차에서 내려 검은 물체 쪽으로 다가가는 관주

관주 (자세히 보며)뭐지?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허만 빠르게 날름거리는 암컷 먹구렁이

관주 (놀라며) 배..배... 뱀???
 (뒷걸음치며 빠르게 차로 돌아가는 관주)

S# 5. 풀 숲

머리가 거의 다 벗겨져 몇 올 안 남은 헬썩한 노인,
어깨에 걸친 바구니 안에 여러 종류의 약초 보이고,
나뭇가지로 풀 숲 여기저기 살피고 있다.

S# 6. 차 안

차안에서 몸을 부르르 떨며 잠금장치 확인하는 관주

관주 아니, 아무리 여기가 자연 그대로 보존된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그렇
지. 무슨 가짜 뱀도 아니고 진짜 뱀이 대낮에 막 길가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고 그래.
(조수석에 있는 책자 확인하며) 설마.. 저게 그냥 뱀이 아니고, 멸종
위기 생물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책장 넘기다 방금 본 뱀이랑 똑같이 생긴 사진 발견) 아닌 게 아니
라 맞네! 뱀이 아니고 암컷 먹구렁이?? 게다가 멸종위기 1급 생
물??

S# 7. 도로

암컷 먹구렁이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허만 날름거리고 있고,
관주, 다섯 발자국쯤 떨어져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관주 (입을 손으로 때리며) 그래, 이 입이 방정이다. 이 입이! 이제 갓 취
업한 놈이 여자가 뭐가 급하다고 여자 타령을 해서리.. 여자 얘기하
자마자 암컷 먹구렁이가 눈앞에 딱 나타나냐고~

이때, 관주 휴대폰 벨소리 요란하게 울리는데
소리에 놀라 먹구렁이 움직일까봐 재빨리 전화 받고 나무 뒤에 숨는다.

관주 (목소리 낮춰서) 여보세요!
대리 (E) 관주 씨~ 오늘은 사무실 다시 들르지 말고, 거기서 바로 퇴근
해. 집 근처잖아~
관주 (울먹이며) 네. 감사합니다. 근데, 대리님! 제가 방금 암컷 먹구렁이
를 본 거 같은데요.
대리 (E) 뭐? 먹구렁이님을?? 지금 어디 계신데?

관주 네?? 계..계시다뇨?
 대리 (E) 멸종위기 1급이신 먹구렁이님 말이야~
 관주 생태해설 자료 수집해서 운전하고 가는 길이었는데요. 아, 그냥 도로 한가운데 떡 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 무섭게 왜 도로 한가운데에..
 대리 (E)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일광욕 하러 나오셨구나. 밤사이 체온이 많이 떨어지셨을 테니까..
 관주 일광욕이요??
 대리 (E) 관주 씨가 시간 딱 맞춰 지나가서 다행이네. 편히 쉬실 수 있게 도와드려. 아니다, 도로 한가운데라면 위험하실 수도 있겠는데.
 관주 위험하긴 제가 더 위험하다구요.
 대리 (E) 관주 씨, 지금부터 비상근무야! 알겠지?
 먹구렁이님 옥체 보존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한다. 차량 통제하고 일광욕은 하시되 도로 한가운데 말고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하실 수 있게 조심스럽게 자리 좀 옮겨드려.
 관주 자리를 어떻게 옮겨요??
 대리 (E) 먹구렁이님한테 부탁해야지~
 관주 (울먹이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길고 꿈틀거리는 건 딱 질색이라구요.
 대리 (E) 관주 씨만 믿을게. 우린 국립공원 직원이란 사실만 명심하라구!
 (전화 바로 끊는다)
 관주 대리님! 대리님!

S# 8. 차 안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차 안 구석구석 뒤지는 관주.
 마스크와 긴 장화, 두꺼운 옷 등으로 무장하고 혼잣말 한다.

관주 (크게 한 숨 쉬고)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나는 국립공원 직원이고, 멸종위기 1급 생물이 눈앞에서 위험에 처해있는데 그냥 갈 순 없는데... 아니.. 그냥 가고 싶다... 그냥 가면 안 되겠지?? 나 어떡하냐 진짜...

S# 9. 차 밖

차창 밖에서 손으로 쌍안경 만들어 뚫어지게 관찰 하는 노인.
 관주의 행동이 볼수록 이상해서 점점 더 차 가까이 다가간다.

당숙 우리 조카, 관주 아녀? 근데 저 아이가 차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
나? 사내놈이 대낮에 우는 거??

S# 10. 도로

완전 무장한 채 차 안에서 내리는 관주.
근처에서 나뭇가지 주위와 천천히 구렁이 앞으로 다가간다.
이 모습 차 뒤에서 몰래 바라보는 당숙, 가우똥한 표정이다.

관주 (울먹이며) 령이님. 제발 태닝은 안전한 곳에서 하세요. 왜 하필 도
로 한가운데 누워 계시냐구요. 그것도 제가 지나갈 때 맞춰서...
(나뭇가지로 구렁이 살짝 살짝 건드리며) 령이님. 대피하세요. 여긴
위험해요. 여기 말고 안전한 곳에서 즐기시라구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요!!!

당숙 (E) 관주야~ 그놈 못 도망가게 꼭 붙들고 있어라!

관주 (소리 나는 곳 바라보면 오촌 당숙이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휘
날리며 달려오고 있다)
.....당숙??

S# 11. 병실 (과거 회상)

병실 침대에 링거 맞으며 누워있는 당숙.
문병 온 관주와 친척들, 당숙 곁에서 걱정하고 있다.

아버지 수술은 잘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친척1 그래도 암은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니 조심, 또 조심해야지.

친척2 퇴원하면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고, 운동하면서 체력 기르시면 금
방 회복할 거예요. 워낙 건강은 타고나셨으니까!

관주 (말없이 걱정되는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인다)

S# 12. 도로

관주, 멀뚱하게 서서 달려오는 당숙 바라보면
당숙, 부리나케 맨손으로 구렁이 낚아챈다.

당숙 (구렁이 보며) 아따~ 고놈 한 번 실하네~ 허허~

관주 (맨손으로 잡는 모습 보고 끔찍한 표정) 혁!
 당숙 관주야~ 잡아두느라 고생했다. 바쁠 텐데 언능 가봐라~
 관주 아... 네. 당숙.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당숙 (구렁이 손에 꼭 붙들고 뒤돌아 휘파람 불며 집으로 향한다)
 관주 당숙.. 아주 건강하시네. 다행이다!

S# 13. 차 안

관주, 차에 올라타서 바로 마스크와 장화, 겉옷 하나씩 벗는다.

관주 우와~ 환갑도 넘으신 분이 대단 하시네~ 떡구렁이를 맨손으로 그
 냥 한 번에 잡으시고~ 당숙 못 만났으면 나 혼자 고생할 뻔 했어.
 으~ 생각만 해도 끔찍...
 대리 (E) 관주 씨만 믿을게. 우린 국립공원 직원이란 사실만 명심하라구!
 관주 (이제야 생각난 듯) 아 맞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S# 14. 관주네 거실 (회상)

관주네 가족이 거실 식탁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관주 (밥 먹으며) 당숙 퇴원하신지 이제 일 년 됐죠?
 아버지 응. 퇴원하시고 몸에 좋다는 거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바쁘가
 보더라~
 어머니 (걱정스럽게)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될 텐데.
 아버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이겠지. 5년 지나야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다니까.
 관주 암 환자한테는 뭐가 좋대요?
 어머니 좋은 건 많지~ 구하기 힘들고 비싸서 그렇지.
 아버지 수소문해서 상황버섯도 드시고, 산삼도 구했다던데.
 어머니 요즘은 떡구렁이 잡으러 다니신데요. 떡구렁이가 몸보신에 그렇게
 좋았던데.. 찾기 힘든가 봐요.

S# 15. 당숙 집 마당 (상상)

마당 가운데 커다란 솔 안에 무언가 꿩이고 있는 당숙

키만큼 큰 주걱으로 술 안을 저으며 콧노래를 부른다.

당숙 관주야~ 사랑하는 우리 조카 관주야~
 당숙이 네 덕에 몸보신 할 수 있겠다.
 고맙다! 사랑한다. 관주야~

S# 16. 차 안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괴로운 표정의 관주

관주 내가 그 순간 뭐에 썩었어. 아니, 령이님 구출하러 가서 생포를 도
 운 게 말이 돼?? 그것도 국립공원 직원이!!!

S# 17. 병실 (상상)

인공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당숙
병실에서 수군거리는 친척들.

친척1 당숙이 어렵게 잡은 떡구렁이를 관주가 도로 가져갔다며?
친척2 그렇다니까! 그때 그 떡구렁이만 고와서 드셨어도 암이 재발하진 않
 았을 텐데...
친척1 당숙 돌아가시면 관주 탓이지 뭐!
관주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손들고 울고 있다)

S# 18. 차 안

갈팡질팡한 표정으로 헨들만 탕탕 치며 괴로워하는 관주.

관주 아 진짜 난 이제 어떡해야 하나! 아유~

S# 19. 사무실 (상상)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주.
관주 흘겨보며 속닥이는 직원들.

직원1 (속삭이며)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 말이야. 멸종 위기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친척 몸보신 시켜드렸다고?

직원2 정말?? 신입이라 뭘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자진 퇴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직원3 양심도 없나?? 부끄럽지도 않나봐~ 뻔뻔하게 출근해서 자리 지키고 있는 거 보면..
관주 (일하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S# 20. 차 안

관주 (결심 선 듯 시동 걸며 운전한다) 그래! 양심을 속일 순 없어. 당숙도 먹구렁이가 멸종위기 동물인 건 모르고 하신 행동일 거야. 정확히 설명 드리고 먹구렁이를 놓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S# 21. 당숙 대문 앞

관주, 문 앞에서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린다.

당숙 (놀라며) 어? 관주 너 언제 왔냐? 안 바쁘냐? 니 아버지가 너 취직한지 얼마 안 돼서 일 배우느라 엄청 바쁘다고 하더만~
관주 저기.. 당숙!
당숙 그래!
관주 아까.. 그 구렁이 말이예요.
당숙 그래, 너 아까 그거 잡아두느라 아주 수고했다.
관주 그게 아니라..
당숙 폭 고아서 저녁에 너희 아버지랑 한 그릇 하려고 지금 물 끓이고 있는데~ 왜??

관주, 마당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솔단지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

관주 (덜덜 떨며) 당숙, 제가 일하는 곳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거든요.
당숙 그래?? 우리 조카 좋은 데 취직했네. 축하한다!
관주 감사합니다. 아까 그 구렁이가 멸종위기 1급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포획하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당숙 뭘 소리여?? 니가 아까 나 도와줬잖아.
관주 ???
당숙 뭘 그렇게 봐??
관주 그때는 제가 구렁이가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갑

자기 당숙을 만나는 바람에.. 깜빡하고...

당숙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다냐?

관주 놔주세요. 당숙!

당숙 뭘??

관주 떡구렁이요.

당숙 (화가 나서 관주를 위아래로 쳐다보다가) 헛소리 말고 언능 집에 가
거라!

관주 (애원하듯) 당숙....

당숙 (한숨 쉬며) 니가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너는 느그 당숙이 아
프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 놈 가지고 몸보신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여기까지 쫓아와 놔주라 마라 하나?

관주 너 착실하고 예쁘게 봤는데.. 틀렸구만~ 아주 못쓰겠어~ 위아
래도 없고..

관주 죄송해요. 당숙...

당숙 (대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팽하고 닫는다)

관주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며) 당숙.. 떡구렁이 드시면 안 돼요. 제발요.
멸종 위기 동물을 함부로 포획하다보면 결국엔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 환경이 인간을 위협하게 됩니다.
암이나 모든 질병의 근원도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당숙... 제발 구렁이 놔주세요. 살려주세요!

당숙 (대답없이 조용하다)

관주 (다급하게 문 두드리며) 당숙!!! 당숙!!!

대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고

S# 22. 관주의 상상

대문 열고 나온 당숙, 그물 안에 든 떡구렁이 손에 들고 있다.

당숙 (미안해하며) 아까는 당숙이 뭘 모르고 이 구렁이를 잡았다.
미안하다!

관주 조카 니 얘기를 듣고 나니 내가 잘못된 게 맞아야~

관주 (감동해서) 당숙! 정말 감사합니다.

당숙 (구렁이 담긴 그물 내주며) 얼른 이 구렁이 다시 풀어주고 너도 앞
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관주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숙!

(당숙과 부등켜안고 영영 운다)

S# 23. 당숙 대문 앞

문 열리면 좀 전과 달리 힘없고 슬픈 표정의 당숙
손에 들고 있던 돈을 관주에게 쥐어준다.

당숙 그래. 아까 니가 구렁이 못 도망가게 붙들고 있었는데.. 이 당숙이
 눈치가 없었다. 성질 부려서 미안했다.

관주 (당황해서) 아니 이 돈은...

당숙 그리고 니가 고생해서 같이 잡아줬는데 내가 공짜로 받을 순 없제~
 아무리 당숙 조카 사이라도 말이여~

관주 당숙 그게 아니라...

당숙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밥값이라 생각하고 받아둬라~
 그동안 이 당숙이 너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챙겨주고 미안했다.

관주 (돈을 안 받으려고 뿌리친다)

당숙 어허!!!! 어른이 주는 돈인데 거절하면 쓰냐! 안 쓰냐!

관주 (울먹이며) 당숙.. 돈 말고 구렁이요... 구렁이 주세요.

당숙 (돈을 억지로 관주 주머니 안에 넣으며) 다 큰 사내놈이 자꾸 그렇
 게 떼쓰면 못 쓴다.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 산짐승들 돌
 아다녀서 밤길 운전 위험하다!
 (다시 문을 팽하고 닫는다)

관주 (썩썩한 표정으로 주머니 안에 억지로 구겨 넣어진 돈을 바라본다)

S# 24. 뉴스

경찰서 앞에서 리포팅 하고 있는 기자 모습

기자 오늘 오후,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인 28세 김모 씨가 멸종위기 야
 생동물을 직접 포획해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
 다. 경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라 추측하고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관주 (손에 수갑 차고 얼굴 모자이크 된 채 음성 변조된 목소리 인터뷰
 하는 모습)
 처음입니다. 딱 한 번이구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어요. 저
 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기자 우발적 맞습니까? 제보하신 친척 분에 의하면 자발적이었다고 하는

관주 (억울해서 실제 목소리 나온다) 누가 그래요? 당숙이 그랬죠??
기자 공단 직원의 청렴하지 못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주 부모님, 경찰서로 급하게 뛰어 들어와 관주 때리며 울먹인다.

부모 관주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S# 25. 차 안 (밤)

어느새 어두워진 저녁, 오랜 시간 차 안에서 고민하던 관주.
차 안을 뒤져 봉투 찾아 그 안에 당숙이 준 돈을 넣는다.

S# 26. 당숙 대문 앞

봉투를 들고 당숙 대문 앞에 선 관주
여러 번 문을 두드리지만 대답 없는 당숙.
관주, 봉투만 대문 안에 끼어놓고 자리를 떠난다.

S# 27. 국립공원관리공단 건물 전경

늦은 밤, 모두 퇴근하고 불 꺼진 건물.
3층 사무실 한 곳만 불이 켜져 있다.

S# 28. 3층 사무실

불 켜진 사무실 안, 홀로 책상에 앉아있는 관주
작성 중인 서류 확인하면, 사직서이다.

S# 29. 관주 집 마당

관주 아버지와 이야기 중인 당숙.
대문 열리고 관주가 지친 모습으로 퇴근한다.

관주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다) 저 왔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었어?
관주 (마당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당숙과 눈 마주치고 침울하다)

오셨어요? 남은 일 좀 하느라구요.
 당숙 (관주 힐끗 보고 살짝 미소 짓고 대문 나선다)
 아버지 가시게요?
 당숙 늦었는데 이만 가 봐야지.
 아버지 그럼 살피 가세요~
 관주 (당숙 가는 모습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S# 30. 관주 방 안

해가 떴는데 계속 침대 위에 누워서 자는 관주
 노크하는 소리 들리고 잠시 후 방문 열린다.

아버지 계속 자는 거야? 어디 아프냐? 출근 안 해?
 관주 (이불 끌어 당기며) 안 가도 돼요.
 아버지 왜?
 관주
 아버지 (놀리며) 너 어제 당숙한테 땡깡 부렸다면?
 관주 (신경질 내며) 제가 무슨 아이예요? 땡깡은 무슨..
 아버지 그래서 오늘 출근도 안 하는 거야?
 관주
 아버지 어제 니가 살려주라고 사정했던 구렁이 멀리 도망가부렀다던데..
 관주 ???
 아버지 술에 물 끓이는 동안 그물 안에 담아서 대야로 털어냈는데, 얼마나 힘이 좋으면 그물 끊고 도망갔드랜다~
 관주 (누워있다 좋아서 벌떡 일어나며)
 진짜요? 진짜 먹구렁이 살아서 도망갔대요?
 아버지 그래~ 그렇다니깐!
 그거 고아 먹었으면 몸보신 제대로 하는 거였는데...크크~
 관주 아버지!!!
 아버지 니가 당숙한테 하도 사정하고 애원해서 안 그래도 풀어주려고 했는데 구렁이가 알아서 도망갔다고.. 어제 당숙 오셔서 얘기하더라.
 관주 (크게 한숨 쉬며) 아~ 다행이다.
 아버지 (의아해하며) 너 근데 오늘 진짜 출근 안 해도 돼? 벌써 10시가 넘었어.
 관주 (시계 보고 놀라서 얼른 일어나 급하게 옷 갈아입는다)

S# 31. 사무실

각자 자리에서 일하느라 조용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헝클어진 머리의 관주 들어온다.

관주 (꾸벅 인사하며) 늦어서 죄송합니다.
직원들 (관주 모습 보고 ㅋㅋ 웃는다)
관주 (빠르게 의자에 앉으며 컴퓨터 켜는데)
과장 (손에 봉투 들고 관주 부른다) 관주 씨! 근데 이건 뭐야??
관주 (놀라서 과장 손에 들고 있던 봉투 빼앗아 절단기 속에 넣는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좀 제 정신이 아니어서..
과장 (손에 다른 서류 들고) 관주 씨 사직서는 여겼는데, 봉투만 찢어버리면 뭐해~
직원들 (큰 소리로 웃고)
관주 (다시 꾸벅 인사하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S# 32. 추어탕 가게 안 (현재)

직원들 식사 끝내고, 관주 식사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땀 뻘뻘 흘리며 추어탕 마지막 국물까지 들이키는 관주

관주 아~ 든든하다! 추어탕 이거 제대로 보양식인데요.
(주방 향해) 이모님! 추어탕 특으로 5인 분만 포장해주세요.

S# 33. 추어탕 가게 앞

직원들 먼저 나오고 뒤에 관주 나오는데
손에 포장된 추어탕 봉투 들고 통화중이다.

관주 당숙!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사 간 곳은 대학병원이라 가까워서 다니기 좋으시죠?
당숙 (E) 니 놈이 내 건강 걱정됐으면 그때 먹구렁이 내놓으라고 하질 말았어야지~
관주 당숙! 또 왜 그러세요~ 잇을 만 하면 꼭 그러시더라~
당숙 (E) 내가 그때 그 암컷 먹구렁이만 고아 먹었으면 병원도 더 이상 안 다녔을 텐데.. 다 니 놈 탓이야.
관주 에잇! 거짓말! 당숙 엇그제도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내 칭찬 글 올리셨던데~

당숙 (당황하며) 뭐.. 그거 나 아니야~
관주 아니긴 뭘 아니에요. 내 조카가 청렴한 국립공원 직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당숙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전화 끊어!
관주 당숙! 고마워요. 내가 방금 진한 추어탕 당숙 드리려고 포장했어요.
당숙 (솔깃해서) 추..어탕??
관주 내가 그때 구렁이는 못 드시게 했지만 추어탕은 실컷 드실 수 있게 평생 사드릴게요. 이따 퇴근하고 댁에 들릴 테니까 저녁 식사 하시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죠??

S# 34. 당숙 집 대문 앞 (과거)

대문에 꽂혀 있는 봉투 뜯어보는 당숙.
봉투 안에 돈과 관주가 쓴 편지 들어있다.

관주 (NA) 당숙. 어린 조카가 맘 상하게 했다면 용서하세요.
하찮은 뱀일지라도 저는 국립공원 직원으로서 그 뱀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해서 주신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받는다면 처음 시작하는 직장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